

■ 카 라이프

추석연휴 유용한 자동차 보험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단기운전자 특약, 2만원이면 교통사고 걱정 끝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 연휴는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특히 추석 당일에는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50% 이상 늘어나므로 사고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교통사고 발생에 대비해 유용한 자동차보험 상식을 알아두는 것도 괜찮다. 다음은 손해보험협회가 제시하는 추석 연휴 유용한 보험 상식이다.

형제·동서 등 친척 운전 사고도 보상

무보험·뺑소니 피해 '정부보장' 활용

◇'단기운전자 특약' 활용하세요

보통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이 적용되는 운전자 범위를 '배우자 특약'이나 '가족 특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경우 배우자나 부모 이외의 형제, 처남, 동서 등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추석 연휴 귀향길에 장거리 운전을 흔자 하기 부담스럽지만 만일의 사고가 걱정된다면 이때는 자동차보험의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활용하면 된다.

단기운전자 특약은 1만~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일주일이나 보름 동안 보험을 적용받는 상품이다. 운전자 범위에 제한 없이 누구나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추석 연휴에 상당히 유용하다.

단 특약에 가입한 당일 밤 24시부터 사고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하기 하루 전날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

◇'정부보장사업' 알아두세요

추석 연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가장 난감한 경우가 바로 가해자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다. 또 뺑소니 차량을 만나도 막막히 마찬가지다.

이러한 피해자를 위해 '정부 보장사업'이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사업은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사망시 최고 1억원, 부상당했을 때 최고 2000만원의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 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한 후 보장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13개 손해보험사 본사나 지점으로 연락해야 한다.

정부 보장사업 수행 보험사는 메리츠 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보, 그린손보,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동부화재, AXA다이렉트, 더케이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 에르고 다이렉트 등이다.

◇'무보험차 담보' 너무 믿지 마세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운전자들은 대부분 '무보험차 상해 담보특약'에 가입된다.

이는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의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 특약이다. 따라서 추석 때 다른 사람 차를 마음껏 운전해도 좋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특약에는 제한이 있다. 우선 자신이 물다가 망가뜨린 차량의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 대상은 상대방의 인적, 물적 피해 그리고 자신의 인적 피해다.

상대방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보상하지만, 자신의 인적 피해는 보상액이 2억원으로 한정된다.

또 자신이 보험에 들어둔 차와 같은 차종을 운전할 때만 보상된다. 예를 들어 승용차 보험을 든 사람이 승합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을 못 받는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아버님, 어머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십시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마음 속에서만 뱉었던 사랑한다는 말, 3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작은 관심의 실천입니다.
삶의 즐거움은 누군가의 억지말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미움은 몸과 마음에 건강을 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국제약품은 그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ukjepharm.co.kr

A
C E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비타민 A, C, E의 보급

- 육체피로, 임신 수유기 병증·병후의 체력 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의 완화, 아랫증
- 헌·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기미, 주근깨)의 완화, 잇몸출혈·비출혈 예방
- 말초혈행장애 및 경련기시 다음 증상의 완화: 어깨·목걸림, 수지처럼 수족냉증

이연의 보급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
캡슐



추석 연휴기간 자동차사고 사상자가 1만5000명에 이르고 추석 당일에는 교통사고가 평소보다 50% 이상 늘어난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만약에 대비해 자동차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유용한 재테크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①경찰에 신고한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안내받는 게 중요하다. 경찰에서는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인근 병원이나 119구급대와 연계된 네트워크를 통해 앰뷸런스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준다. 만약 교통사고로 사립이 죽거나 다친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뺑소니로 몰릴 수 있다.

②보험사 사고접수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험사에 사고가 접수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보험사에도 최대한 빨리 연락을 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보험사에서는 사고처리 전문 직원을 현장에 보내 신속한 사고처리를 돋는다. 사고자량에 대한 견인·수리 조치도 보험사 직원이 대신해주기 때문에 부담을 한결 덜 수 있다. 보험사에 연락은 가급적 빠를수록 좋다. 만약 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③현장 보존 확실히

스프레이를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카메라로 사고현장을 꼼꼼히 촬영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이름·주소·전화번호도 확보하고, 가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추후 번복할 것을 대비해 자필 진술을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틀 수도 있다.

④제2의 사고 주의

사고현장에서 차량을 이동시켜 할 경우 위에서 언급한 스프레이나 사진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실히 확보한 다음 도로 우측 가장자리 등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차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비상등을 켜고, 후방 100m 이상 되는 위치에 고장차량 표식을 설치해야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